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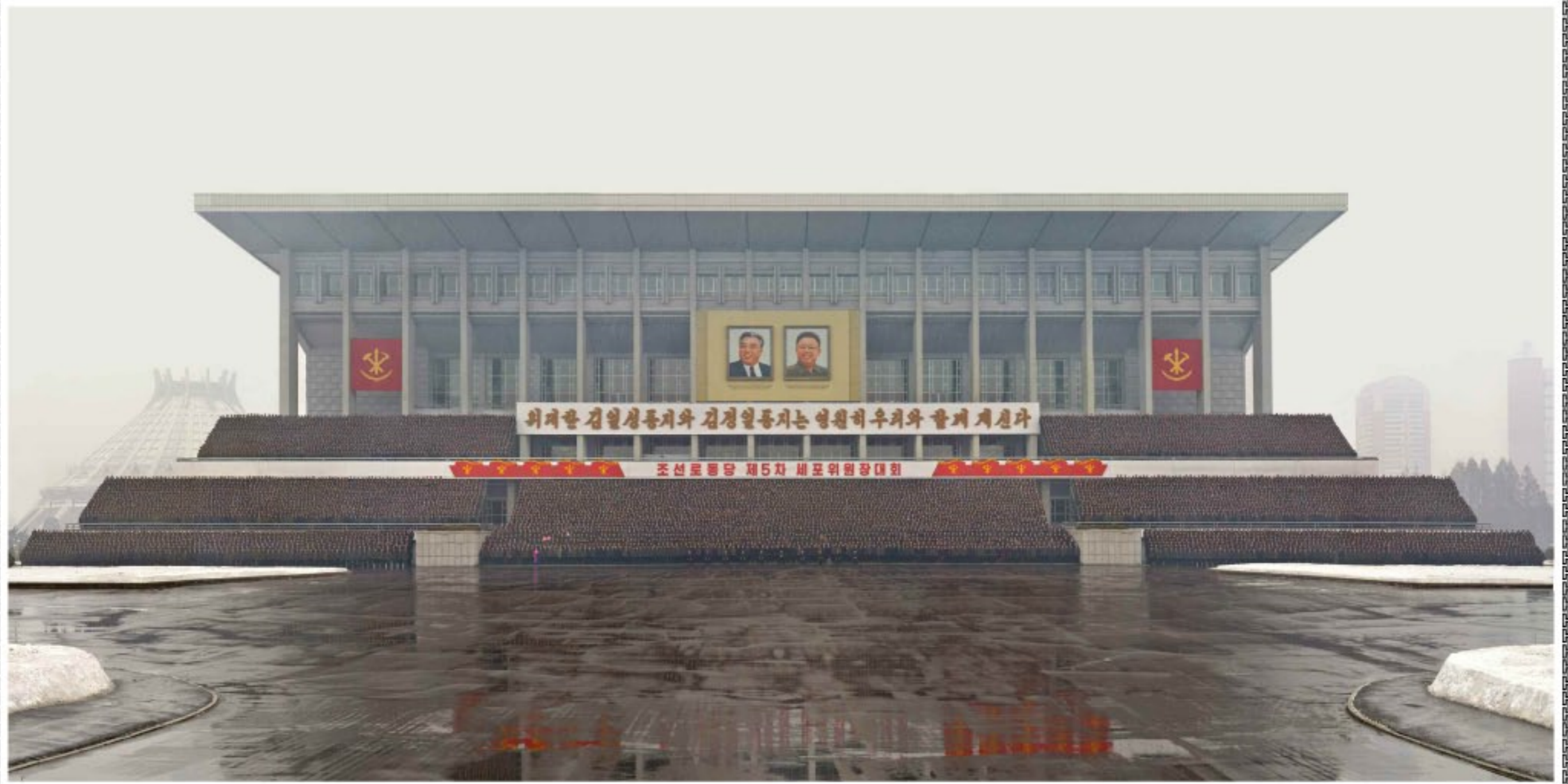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9호 [루게 제25868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12월 24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박광호동지, 김평해동지, 태중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바탕으로 다져 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촬영장은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을 진작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나가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담배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발전기초조직인 당세포를 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튼튼히 꾸리고 대중의 앞장에서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대회참가자들은 주제의 당건설사에 특기할 전당세포위원장들의 대회합에 품소 참석하시어 당세포사업에서 뛰어뛰어나가야 할 불멸의 대장을 마련해주신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의 기본정신을 높이 받들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더욱 든든히 꾸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당으로 빛내이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기자도반

## 당 세포 강화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 지침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연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자》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박정남 강원도당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강화의 전로를 밝혀 주고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배양하고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안겨준 불멸의 대장이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힘입어 당의 강회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은

전우로 준비시키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당의 당원들과

우리는 당 사상 사업을 철두철미 도란의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정수분자들이 모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 하도록 하겠다. 하여 강연도 정신의 창조자물담게 당 제7차

당세포위원장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온 힘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김정현 신계군 백곡농장 제2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세포에서는 사업의 중심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정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당세포위원장의 중요한 임무이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키우는 기본거점이다. 당세포는 사상사업의 여러 과정과 계기들을 통하여 위대성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 애국주의의 교양을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벌려 나가겠다. 또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당원

들과 노동자들이 투철한 주체관을 지니고 제국주의와 계급적위력을

### 당 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여

대중적응능력을 발휘하고 집단적의식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겠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고통과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며 가정방문도 자주 하면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압국중산투쟁에서 누구나 다 혁신자, 위원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음을 맞추고 서로 돕고 이으면서 단합된 힘으로 투쟁해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다. 당세포에서는 전향단위 당세포를 둘러싼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합치고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과건적이 투쟁하며 직물과의 결전의 시각이 오면 사랑하는 조국을

대중적응능력을 발휘하고 집단적의식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겠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고통과 생활상애로를 제때에 풀어주며 가정방문도 자주 하면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압국중산투쟁에서 누구나 다 혁신자, 위원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음을 맞추고 서로 돕고 이으면서 단합된 힘으로 투쟁해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된다. 당세포에서는 전향단위 당세포를 둘러싼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합치고 집체적지혜를 발휘하여

보우하여 한사람같이 용감히 떨쳐 나세도록 준비시키겠다.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조금당위원회의에서는 세포위원장들이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정치실무수준과 실천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결속의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지역생활,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헤쳐나가도록 사상전을 더욱 진용적으로 벌려주어 하겠다.

당세포위원장이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자직하면서 최선선진선동맹을 드세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성발달을 고조시키도록 함으로써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겠다.

한평호 경성군당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세포를 중시하는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당세포들의 사업을 더욱 신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

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세포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로배강악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겠다.

군당위원들이 당세포들에 자주 내려가 당정책관철과 당세포총회에도 참가하여 실정을 포착하고 당세포위원들이 당원들에 대한 당정책관철과 지도를 견할없이 바로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확고한 기풍을 세워나가겠다. 대중의 앞장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며 한가진의 어머니처럼 당원들의 마음의 사업을 잘하는 당세포위원장을 내세워주고 평가도 해주어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겠다.

장성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당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해 나갈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당세포위원장의 수준과 능력이 당세포

사업성과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세포위원장의 날을 신속있게 운영하며 강승과 당직상학, 경험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여 세포위원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게 수준을 높이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 당 책임임근들부터 당세포에 늘 내려가 세포위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올리는 보훈을 알고 그 지대대를 손에 쥐도록 배워주고 이끌어주겠다.

당세포위원들의 사업과정에 전향이 나타나면 제때에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경험을 쌓고 교훈도 쌓으면서 일을 잘해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겠다. 당세포위원들이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위단위, 제1선항로를 책임진 승고한 사명관 분분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키겠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차 2차전회의 결정관철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현창기업소의 모든 당세포들이 결사대, 최후대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겠다.

본사기자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 진행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평화선의 전설적녀장군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는 수령에 대한 사랑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빛나는 열렬한 애국자의 영웅사시적투쟁행로이며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고결하고 숭고한 헌생이었다.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혁명가적품성은 주체의 혁명전사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귀감으로 되고있으며 백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생생의 위력으로 전진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대회장은 위대한 태양의 광휘로써 해방이 되시어 주체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기시고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의 대렬을 마련해주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와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참석하였다.

김정숙동지, 양형섭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김수길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김영태동지,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에서 모범적인 일군, 로동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대회는 《어머님은 붉은기와 함께 계시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부강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열렬한 총성과 조국애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나라의 무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최후전투까지 끝까지 지켜나갈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다듬었다.

대회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명도따라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불어넣을 참가자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마》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우리 인민군대를 원하부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선군의 위력으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대하가 만수대년적으로 끓어올라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새겨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는 선출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리 려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대장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어귀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총정의 불꽃이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본사기자

##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화환 진정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24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백두산녀장군의 동상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동상에 놓여있었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박영식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주오동지와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 진정에 참가하였다.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명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교육, 보건,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명기에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일선위전사가 되시어 수령질사용위의 귀감을 창조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융성번영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며 묵상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고귀한 투쟁업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토대로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이 땅위에 어머니의 평생의 념원인 인민의 락민,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한편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만경대혁명렬사릉에 모신 평양지구 성원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스위스조선위원회와 국제주의전사 야. 매, 노비첸 쵸가족이 화환을 보내어왔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스위스조선위원회와 국제주의전사 야. 매, 노비첸 쵸가족이 화환을 보내어왔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23일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뜻깊은 12월에 펼쳐진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

뜻깊은 12월의 조국강산에 위대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 펼쳐졌다.

은 나라 대가정을 따스이 끓어오른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2월 24일을 맞으며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유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들을 찾가시 식로품들을 보내주시었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을 정히 뵈아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은 받아안은 원아들과 보양생들, 교직원, 보육원, 교양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 하였다.

어머니당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남다른 행복만을 누려온 만경대혁명학원, 강민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이 또다시 기쁨의 파도에 휩싸여있었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좋은것이 생기면 선함으로 돌려주시는 친어머니의 다정한 정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으며 원아들은 만경대의 현풍, 백두의 현풍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각진 유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들에도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넘치게 되었다.

갓가시 식로품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 수도 평양으로부터 평안도, 자강도의 두메산골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곳곳에 자리잡은 양로원들에도 당의 은덕이 뜨겁게 미치었다.

은정어린 선물을 가슴가득 받아안은 보양생들은 반영하는 로동당시대에 복락을 누리며 여생을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대해같은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후대사랑, 인민사랑으로 이어진 온 한해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감동깊은 화폭은 위대한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흠뻑이 행복이 꽃피어나는 사회주의조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부강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민족이 낳은 백제산의 전설적녀장군이시며 걸출한 여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盛大히 기념하고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은 주체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민족대행운의 날이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사실은 희색이 넘쳐나고 있는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조국이 김일성민족, 김정숙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반에 과시하며 사회주의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이 력사의 날을 맞이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날입니다.

지금 천만인민은 한생을 부강조국건설사업에 바쳐오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형편없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이 명우에 백두산절세영웅의 넋이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 이 일세대를 불타는 길에 내딛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장엄한 지향이 온 나라에 뜨겁게 끓어오르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우리절을 떠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어머니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생생하게 목소리를 높이 울려나오고 명예칭호와 훈장들을 수여해드리고있으며 많은 위대성도 새물이 발광하고있는 사실은 희색이 넘쳐나고 있는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입니다.

인류역사는 이름난 여성혁명가들의 존엄이 기록되고있지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같이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시고 서른두해의 길지 않은 생애에 보충없이 보충없는 수백 수천년을 산다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 위대하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

렸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권위를 목숨으로 전정히 옹호 고수하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불사시간이 싸우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이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시기 김정숙동지께서는 정통법령에서 혁명의 배신자의 처행을 단죄하시고 그와 비타협적으로 싸우시며 눈앞의 동태자의 수명 속에서 사명부의 명명징벌을 태공하고있는 변절자의 정체를 제해해 폭로분쇄하시던것을 비롯하여 언제 어디에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모시도록 하시며 수령님의 권위와 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가시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불멸의 혁명승가《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창작보급하는 사업을 맡기 하시고 힘있게 추진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 대하여 가슴뜨겁게 소개해 주시며 하시며 수령님의 권위와 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가시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길에서 영웅적실적으로 보여 주시고 유산으로 불려주신 수령정사옹위의 고귀한 정신은 세대와 단계를 이어 수천수만인 수령옹위의 전위투쟁을 남게 한 근본원인으로 되였습니다.

송고한 그 정신이 증거가치 이어 지는 속에 1211고지의 방위자들과 무장들의 영웅전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령무명의 수명정사옹위투사들이 배설되었으니 오늘날은 나라 천만민중에 이 전진정도의 성세, 방패가 되어 당중앙을 결사옹위해나가고있 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광명을 향하여 총대를 조국을 제방하고 부강조국건설의 군사적도구를 흔흔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신것입니다.

김정숙동지는 총대와 함께 한생을 빛내이신 전설적인 명백선녀장군이 시었고 능숙한 군사정치활동가이 시었습니다.

기밀적절한 작살총격구방위전투와 로명전투, 시난차전투, 무출생전투를 비롯하여 항일혁명전쟁의 수많은 전투들마다에는 부대앞에 조성된 위기를 서슴없이 한몸으로 막아 나서시며 무비의 용감성과 신묘한 사색술로 승리의 돌격로를 앞장서 열어나가신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영공적위훈이 멀지 않 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서 용감의 숨을 헤치시며 장엄한 도전력의 신과, 연사시기를 비롯한 북부국경건설의 조 내 깊이까지 진출하시어 비상한 조직적수련, 원숙한 사업능력과 넓은 포용력으로 적극적인 지하정치공작을 벌리시며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 하시고 전진항쟁으로 힘있게 불타오르시었습니다.

일찌기 녀성의 몸으로 총을 잡고 조국해방의 혁명적업무를 성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항일의 전설적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전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던 정구적혁명무력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무비 수백차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불분불류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었습니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관부학교를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들과

인민군부대들을 자주 찾아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지휘관양성사업과 갖 조직된 여러 군종, 병종, 전문병부 대들이 정구적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구상을 맡아서 병기품장 로동계급을 찾고찾 오시어 그들의 심정마다에 항일의 연금록화전진, 지략정세의 혁명정신 을 심어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총정도와 무한한 헌신은 강위력한 자립적병기 공업의 탄생을 알려며 높이 울려다 시던 기탄없는 의 총생애도 력적이 었습니다.

인민군대가 당의 근대, 무적결속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조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 쳐오는 승리의 로정을 돌이켜볼 때 마다 우리는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소개해 주시며 하시며 수령님의 권위와 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가시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의 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은 인민에 대한 열사적무와 열렬한 조국애에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 앞장서고 고추추동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의 승고한 리념을 실감깊이 간직하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오신 김정숙동지는 인민의 진정한 맘, 감탄 총부시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재능들의 토대로 부터 한 어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속에 서슴없이 뛰어드시고 열병에 걸린 무력대교수녀를 관대 시키기 위해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천혈육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부여주신 애민선인의 승고 한 정신세계는 오늘날 민사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사의 갈피마다에는 한몸도 무릅쓰고《선명》 단행본을 펴낸 동지들의 정치적성명을 지켜주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음 걸음 이고 달려오시어 유격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신 사실

등 혁명동지들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감동 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습 니다.

송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못해서 그 그들이 남기고 간 아들딸들을 사랑 하는 환골이 인아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의 전 역군들로 역세게 지어나도록 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하늘땅끝아래도 가서 유자녀들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던 항일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전진 인민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타오르 시키기 위하여 불분불류의 로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꿈에도 그리시던 사랑하는 고향 을 지켜애 두고도 불려주시어 멀 처나선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았으셨 으며 대자연계조사업의 일장에서 불소 가세정도 하시고 절름보 지시 면서 광범한 대중의 건국열의를 북돋아주시던 김정숙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승정, 거룩한 발자취는 나라 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 려어오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애국 애민의 승고한 모범은 오늘 사회주의 강국건설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군 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참된 애국 의 빛을 깊이 새겨주고 그들을 끝없이 격려하고 영웅적위훈장조개로 때 리어주는 힘있는 수동력으로 되고 있 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올리시어 우리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명령, 장군복을 누리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셨것입니다.

항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한없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감동 적인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습 니다.

송고한 혁명적의리를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못해서 그 그들이 남기고 간 아들딸들을 사랑 하는 환골이 인아 육친의 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의 전 역군들로 역세게 지어나도록 길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하늘땅끝아래도 가서 유자녀들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하시던 항일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전진 인민을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불타오르 시키기 위하여 불분불류의 로고를 바치시었습니다.

꿈에도 그리시던 사랑하는 고향 을 지켜애 두고도 불려주시어 멀 처나선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았으셨 으며 대자연계조사업의 일장에서 불소 가세정도 하시고 절름보 지시 면서 광범한 대중의 건국열의를 북돋아주시던 김정숙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승정, 거룩한 발자취는 나라 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 려어오릅니다.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애국 애민의 승고한 모범은 오늘 사회주의 강국건설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군 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참된 애국 의 빛을 깊이 새겨주고 그들을 끝없이 격려하고 영웅적위훈장조개로 때 리어주는 힘있는 수동력으로 되고 있 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올리시어 우리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명령, 장군복을 누리는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셨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군사선례대양군인 을 결사옹위하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론을 헌치의 드림도, 한김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 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천지총파가 닦여나고 하여도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당되어 반드시 승리한 다는 혁명적신념을 심장속에 포아막 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 로 결사옹위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 들은 준엄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름된 통일단결의 정통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지켜야 하는 최고명도자동지와 운명의 피를 맺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상상의지적으로 향토성을 안아키우시어 백두의 혈통,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걸음하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이 땅위에 인민들이 세상에 무덤 들은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땅인, 천하세일강국을 일떠세우 는것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의 업적이었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회의 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주의 가치, 자력정쟁의 가치높이 온갖 적대세 력들의 야만적인 제제압살책동을 물 거름으로 만들며 국가경제발전 5개 년전략의 목표들을 집행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동원적, 총각성전을 과감 히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이끄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든다 경배하는 김정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 에 굳게 붙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투쟁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 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단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력자 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단세!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의 보고



평양에서 열린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 기념대회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탄생 10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24일 회령에서 진행되었다.

과학, 교육, 혁명사적, 출판보도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연구사, 교원, 기자, 강사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통합번영과 관련한 비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던 항일의 전설적녀장군이시며 걸출한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힘있게 해설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탄생은 수령님께 대한 충실성의 한생, 혁명을 위한 투쟁의 한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숭고한 한생》이라는 제목으로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부교수 김인숙동지가 토론하

해설하였다.

주제24(1935)년 9월 혁명의 무기를 붙어잡고 총대와 함께 한생을 빛내이신 혁명적명세를 다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전투에서의 갈피마다에 위사 시킨 탁월한 녀성정치활동가 이시리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머님께서는 광범한 녀성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흔흔히 묶어주시고 녀성동맹을 강화 하여 녀성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 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김정숙동지께서 녀성을 총을 쥐고 혁명을 위한 투쟁과 새 조국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시 어 녀성운동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오시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혁명혁명사적관 과정 정신회 동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와 업적을 깊이 되새김이며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회의의 과업관철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나갈 것들을 로 명하였다.》

토론자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나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으며 새기와 단대를 이어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매워 경배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철결단적의 사상, 방패가 되며 당중앙의 사상과 명도를 총정도로 받들어나감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주와 자주, 자강적역적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선화자이시며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과 업적을 깊이 되새김이며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회의의 과업관철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나갈 것들을 로 명하였다.

토론자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나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있으며 새기와 단대를 이어 빛을 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매워 경배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철결단적의 사상, 방패가 되며 당중앙의 사상과 명도를 총정도로 받들어나감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자주와 자주, 자강적역적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선화자이시며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 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사과 업적을 깊이 되새김이며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회의의 과업관철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켜나갈 것들을 로 명하였다.

토론자는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 인민을

##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빛내가리

지난 40여년간 신화혁명사적지를 500여만명이 참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탄생은 참으로 수령님을 위한 한생이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이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며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대하 가 격사의 땅 신과애로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주제63(1974)년 10월 10일 신화혁명사적지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통상을 모신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50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으며 뜻깊은 올해 12월에 돌아와서만도 그 수 는 매일 수천명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이 총적하신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모범을 받받아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 단세!

제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신과혁명사적지는 백두산녀장군께서 주제26(1937)년 봄 도천리를 거점으로 활동하시던 국내깊이내 당조직과 조국광복회조직을 확 대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신 뜻깊은 곳이다.

백두산의 땅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통상을 찾아다니고, 목숨이들 울림을 듣고있는 조국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어머니의 혁명생애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신과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되새김이며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두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지니신 백두산녀장군의 위업적봉토를 다시금 되새기고있다.

신과혁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되새김이며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두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지니신 백두산녀장군의 위업적봉토를 다시금 되새기고있다.

##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 길이 빛내가리

지난 40여년간 신화혁명사적지를 500여만명이 참관

위대한 명도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탄생은 참으로 수령님을 위한 한생이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한생이었습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며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대하 가 격사의 땅 신과애로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다.

주제63(1974)년 10월 10일 신화혁명사적지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통상을 모신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50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하였으며 뜻깊은 올해 12월에 돌아와서만도 그 수 는 매일 수천명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이 총적하신 백두산녀장군의 숭고한 모범을 받받아 경배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숙동지의 명도마라 조선로동당 단세!

【조선중앙통신】

#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대승적혁명 전사들을 백두밀림에서 휘날리던 혁명의 불은기와 함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을 가장 숭엄한 심정으로 우리들끼리 걸걸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출한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하늘땅까지 총정다할 줄같은 절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총정하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생애를 새기면 새길수록 혁명의 길에 나서신 그날로부터 혁명활동의 전기간 밀고도 합당한 길을 뜻하시어 애초오신 항일의 녀성영웅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와 우리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던 조선혁명군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 신념을 간직하고 적탄이 비발치는 무한한 격전장마다에서 수령님의 충성을 높이 올리시며 조국해방위업수행에 빛나는 공헌을 하신 수령절사용위의 화신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조국이 백두산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드시어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새 조국건설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시어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이어나가시며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 수 있는 만능도령을 마련해주시는 김정숙어머님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녀성들이 대를 이어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주체형의 녀성혁명가이시며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십니다.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생애는 만민이 우러러 숭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총정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가장 빛나는 헌신의 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절사용위의 위대한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따르배워 우리 율령의 대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총정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길에 나뉘고 있습니다.

# 주체조선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공화국의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명도를 받들어 국가백무백만항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한 기세드높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을 뜻있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수령절사용위의 최고화신이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신 김정숙어머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배로 이끄시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다짐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국의 천만군민과 함께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김정숙어머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어머니의 숭고한 총정의 세계와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바쳐오신 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어머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시었던 모든 조국의 재배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길출한 녀성혁명가, 항일의 녀성영웅, 혁명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총대가 약탈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라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의 실음을 직접 체험하신 어머니께서는 녀성의 품으로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결사투쟁에 나서시었으며 항일전선의 나날 백발백중의 뛰어난 사격술과 명철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6(2017)년 12월 24일 중국 심양

## 추억의 노래들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위대한 한생

12월의 조국강산에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그리움의 한가 울리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날 혁명의 불은기와 함께 계시며 헌민의 심장에 별처럼 빛나시는 백두산녀장군에 대한 소중한 추억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천위천사의 고귀한 삶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어머님의 한생은 수령님께 대한 총정성의 한생, 혁명을 위한 투쟁의 한생,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한생이였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위대한 녀성혁명가, 길출한 녀정군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는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부르는 명가요들이 실려 풀없이 배어지고 있다.

흥미의 정으로 차넘치는 걸걸 하면서도 웅성대는 선풍도 펼쳐 보인 불후의 고전혁명가 《LIU DING》가 세세년전 전인민적 감정을 담은 그리움의 송가로 널리 애창되고 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넘칠대로 수평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혁명군을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의 굳은 명세와 철의 의지가 맥박치는 가요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감명있게 전하고 있다.

노래 《간상봉에 올린 아리랑》은 수령절사용위를 삶의 전부 로, 드림없는 신조로 간직하고 항일혁명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준다. -회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

우리 국가백무백만항의 역사적대업 실현에 완전히 벗을 잃은 미국이 사상 최악의 제재압박정책을 더욱더 광분하고 있다.

23일 미국은 우리의 대북간담도 로고도 《최성-153형시험발사성공을 보도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 경제봉쇄와 같은 유엔안보리사회《제재결의》 제2397호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의외로 조작된 이른 《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탄압한 힘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막연히 전전배치 한다.

우리가 핵사의 온갖 공과에서 지킬려는 시련을 이겨내며 국가백무백만항의 대업을 이룩한것은 미국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평등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며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무차 차별화함과 같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감당하기 위하여 핵무기개발과 핵실험을 정당화하며 당하게 개발한것은 우리의 핵무기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역제책이다.

힘에 의한 《미국제일주의》를 제창하며 세계체제의 허황한 꿈을 실현해보려고 이르는 미국에서 군사적공갈과 위협을 일삼는 미국의 핵공갈을 깰수버리기 위해서는 오직 강대국인 핵제책에 핵무기도 강화해야 한다는것이 지난해 반미대결정회를 통하여 우리가 찾은 절의 진리이다.

## 양어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새 기술들

양어산업은 양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에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양어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몇가지 새 기술들을 소개한다.

우선 물고기의 하루 먹이주는 량을 결정하는데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어에서 먹이주는 량을 비로 정하지 못하면 물고기의 정상생장을 보장할수 없거나 많은 먹이를 필요할수 있다. 컴퓨터 시각기술을 받아들여 양어에 물고기에 대한 화상처리를 하여 물고기의 몸무게를 예측하게 하는데 예측력이 양어조건에 관계없이 실제계보다 가깝다. 물고기의 몸무게를 예측하기 위한 화상처리는 2대의 촬영기로 3차원화상을 얻고 그로부터 물고기의 측면도를 얻은 다음 측면상에서 물고기의 형태학적 특

## 평성시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총정성 실천을 증명해야 합니다.》

평성시에서 짧은 기간에 버섯공장을 새로 건설하였다.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평성버섯공장은 연건면적 1200여㎡에 달하는데 실적이 실적이 좋았다. 현대적이건이 나게 건설된 기본생산공장의 외벽은 한층더 높여지고 장래 2중으로 하고 양분도 2중으로 하여 실내온도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 건물은 1층에는 종관실과 열풍실, 청정실, 발효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버섯배양실이 그르니 꾸려져 있다.

특히 기본생산공장의 지하에는 버섯배양실에서 겨울을 보낼수 있는 시설이 완성이 되어 있다. 겨울철에 지하의 버섯배양실에서는 10℃이상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공장내부의 온실에서는 버섯과 담배를 아울러 재배하게 된다. 그리고 염소와 돼지, 닭을 기를수 있게 된 건물은 2층에는 원료창고와 배 배이 구멍을 낸 울타리형식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상온을 내내 비록 실온이 훨씬 높지 않은 것은 물론 바깥이 잘 통하여 원료의 부패현상을 막을수 있어 실적이 높다. 뿐만아니라 구내에는 산뜻하게 꾸러진 원료분배장도 있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공장현장에 나가 추진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린 문제를 풀아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짧은 기간에 원료창고 및 축산기 지원공과 온실건설이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고 선동사업이 위치 한 공장의 구내에는 계단식으로 된 울타리형식으로 꾸러진 양어장이 펼쳐지고 있다.

시인의 여러 기관, 기업소, 동사무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건설공장에 나와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고 부추되는 지체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시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투쟁열의에 떠받들려 버섯공장은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건설되었다.

공장은 시인의 기관, 기업소, 공장들에 기적정어리는 불온 현상정황에 종근을 원단의 공갈할수 있는 민중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버섯공장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오철준



평성에서 버섯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